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현황과 과제

노명숙^{1*}

¹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and Tasks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 for Remarried Families

Myung-Sook Rho^{1*}

¹Dept. of Child Welfare, Jeonju VISION University

요 약 연구목적은 재혼가족의 증가로 이들의 적응을 돕는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의해 현재까지의 재혼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과, 향후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의 총 9개 재혼가족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 고려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재혼가족을 적절하게 지원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 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돕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분석 결과 향후 재혼 프로그램은 첫째, 교육내용 구성 시 재혼 유형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고, 재혼부부 관계향상과 계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 자녀 출산에 관한 문제를 다뤄야한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 원칙으로서 문제지향적 관점을 지양하고, 재혼가족 기능향상에 초점을 두고, 재혼가족의 적응요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방법 면에서 심리적 상담 프로그램 도입, 재혼준비도 척도지 활용, 재혼자녀 포함, 가족행사와 가족의례 연습 부분을 도입해야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remarried family,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to help the adaptation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marriage preparations and to present consider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emarriage educational program in the future. Through analysis of total nine existing remarriage programs, there are needs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when developing remarriage programs. There is a need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various programs to adequately support the remarried family. Also need to have a system that help adaption. As a result of research, future remarried program shall b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content consists of differency depending on the type of remarriage. Second, we should develop program avoiding the problem-oriented perspective, focus on the enhancements remarried families and address the adaptive factors. Third, psychological support counseling programs should be included. Remarriage Preparation measurement Scale is utilized and children is included in programs.

Key Words : Program development, Remarriage, Remarriage education, Remarried family, Remarriage program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가족변화는 초혼연령의 증가와 혼인형태의 다양화이다. 통계청 자료(2012)에 의하면 평균초혼연령이 2006년에는 남자 30.9세, 여자 27.8세였는데, 2011년에는 31.9세, 여자 29.1세로 상승하였다. 또한 혼인형태는 전체 결혼건수 중에서 아내와 남

편 중 어느 한 편이 재혼인 경우는 9.9%이고, 남편과 아내 모두 재혼인 경우는 11.5%이다. 즉 최근 결혼 연령이 남자와 여자 모두 30세 이상 되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10명 중에서 2명은 재혼가족을 이룬다는 것이다.

재혼가족은 다양한 가족형태 중의 하나이고, 이혼이나 사별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었으나 재혼으로 안정적인 계부모가족을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Myung-Sook Rho (Jeonju VISION University)

Tel: +82-63-220-3923 email: msno@jvision.ac.kr

Received December 17, 2012 Revised December 31, 2012 Accepted January 10, 2013

하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정책적 지원 미비, 전혼 후 미해결된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므로 재혼가족이 새로운 가족형태에 신속히 적응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함으로써 다시 시작하는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지속하려면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 재혼을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현재 재혼가족을 이룬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재혼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의 적응을 위한 것으로서, 계부모와 계자녀의 역할긴장을 감소시키고 계부모-계자녀의 가족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지원으로서 재혼가족상담과 치료, 자조그룹, 사회적인 태도 변화, 재혼생활 안내 정보와 성공적인 재혼모델링 제공, 재혼가족 문화캠프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재혼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와 관련한 연구도 시작단계에 있다[1].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늘어나는 재혼가족의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고찰

2.1 연구방법

국회전자도서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KISS에서 ‘재혼가족 / 프로그램’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제시된 자료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재혼가족 프로그램은 재혼을 준비하는 예비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기존 재혼가정을 형성한 재혼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있었다. 실제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있었고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도 있었다. 재혼가족 프로그램이 소수에 불과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대상이 재혼 전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재혼을 준비중인 예비재혼부부이거나 재혼하여 생활하고 있는 기존 재혼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후 실시한 것도 소수 연구여서 재혼가족을 위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제시된 총 9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2 선행연구고찰

2.2.1 재혼가족의 특성

재혼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결혼한 경력이 있고,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결혼을 통해 새롭게 형성한 가족을 의미한다[1]. 재혼가족은 자녀의 유무, 양육 유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들 재혼가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재혼가족은 가족형성기 초기부터 전혼(前婚)에서의 자녀들을 데리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계자녀와의 관계 성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1,2]. 재혼가족은 부모와 자녀의 유대가 배우자간의 유대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므로 가족생활주기상의 불일치가 크다[1]. 재혼가족은 친부모가 자녀의 현실과 기억 속에 존재해있으며, 자녀가 재혼부모와 친부모 사이를 오고 갑으로써 가족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2]. 또한 전혼이 재혼으로 이룬 결혼관계를 비교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재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혼가족에서 배우자들은 전혼에서의 배우자나 가족관계와 현재의 결혼생활을 비교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끼기도 한다. 재혼가족에서는 이혼과정을 통하여 겪은 상실감·외로움·심리적 고통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미해결된 감정 등이 남아 있으며, 전혼에서 형성된 가족문화나 익숙해진 생활양식이 있어서, 서로 다른 가족의 역사 및 문화와 직면하게 되어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3].

특히 재혼가족의 자녀와 배우자는 이전의 가족관계에 대한 충성심 갈등을 갖기도 하고 전혼가족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며 혼란을 겪기도 한다[4]. 재혼한 남성은 경제적 자원이나 시간·애정 등을 나눠야 할 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친자녀에게 배분하고 싶은 욕구와 현재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4]. 또한 부모가 재혼한 이후에도 자녀들은 한부모가족으로 생활할 때의 패턴에 익숙해짐으로써 새로운 가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는 부모가 현재는 이혼을 했지만 향후 친부모의 재결합을 기대하기 때문에 재혼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생활에 편입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도 한다. 새로운 가족체계가 형성될 때까지 가족 구성원간에 역할 혼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재혼가족 자체적으로 갖는 특성뿐만 아니라 재혼가족을 둘러싼 사회적인 면에서도 일반가족과 구별된다. 즉 재혼가족에 대해 초혼가족보다 문제가 많은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3]. 재혼가족은 사회로부터 부정적 인식이 있고, 긍정적인 지지가 부족하며, 복잡한 친인척 관계에 놓이게 되고, 계부모-계자녀 사이의 법적인 관계도 불분명하다[5].

2.2.2 재혼가족과 관련된 이론적 관점과 모델

2.2.2.1 건강가족의 관점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족의 문제와 병리적 증상보다는 가족의 변화가능성 있는 잠재력과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건강가족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성공적인 재혼가족의 특징은 상실의 극복, 현실적인 기대, 강하고 단합된 부부, 건설적인 의례의 수립, 원만한 재혼 가족 관계의 형성, 분리된 전배우자 가구와의 협동, 분명한 역할이다[6Re-quoted,7]. 대부분의 재혼가족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성공적인 재혼가족의 특성을 목표로 하여 구성되기에 건강가족의 관점을 지향한다.

2.2.2.2 문제지향적 관점과 규범·적응적 시각

재혼가족의 연구관점을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핵가족과 재혼가족의 가족구조적 차이에 의한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문제중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지향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재혼가족을 초혼핵가족과 비교하여 재혼가족의 부족한 기능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지양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특성을 갖는다[8]. 또 다른 하나는 이혼과 재혼을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시각이 아닌 규범적 생활양식의 선택으로 간주하여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규범적, 적응적인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9,10].

2.2.2.3 발달적 모델

발달적 모델은 재혼가족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주안점을 둔다. 이는 임상을 통해 재혼가족들을 심층적으로 면접한 연구자들은 재혼가족들이 공통적인 발달단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적응한 재혼가족들이 이행한 과제들을 경험적으로 정리하여 정립한 모델이다[1].

Papernow(1984)는 재혼가족의 발달주기를 크게 초기의 출발단계, 중기의 재구조화단계, 후기의 재혼가족 굳히기 단계로 구분하였다. 초기의 출발단계는 1)환상(fantasy), 2)혼돈(assimilation), 3)자각(awareness)의 단계로 세분된다. 중기의 재구조화단계는 4)동원(mobilization), 5)행동(action)으로 세분된다. 후기의 굳히기 단계는 6)접촉(contact), 7)해소(resolution)로 세분하여 재혼가족이 총 7단계의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11]. 초기의 단계들은 끝마치는데 각각 2~3년이 걸리고, 중기와 후기의 단계들은 각각 1~3년이 걸린다. 각 단계에서 재혼가족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재혼가족이 형성되는 초기(1,2,3 단계)는 재혼가족이 당면한 도전과 딜레마를 정확히 인식하기,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주변에서 확보하기, 가족원과 신뢰하는 일대일의 시간 갖기, 친부모를 도와주

는 계부모로서 역할하기, 친부모·계부모·전혼자녀 모두의 욕구 파악하기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가족을 재구조화하는 중기(4,5단계)에서는 공평하고 건설적으로 싸우는 법 배우기를 비롯하여 새로운 가족의 규칙과 전통세우기, 가족행사 계획하기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혼가족을 공고히 하는 후기(6,7단계)에서는 성숙한 계부모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기, 충성심 갈등의 재등장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그리고 재혼가족이 '우리'라는 의식을 느끼게 하는 가족만의 시간 가지기 등을 제안하였다 [6].

3.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태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재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재혼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혼준비교육이나 재혼가족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1,4,6,8,9,12,13,14,15,16,17,18].

재혼교육 프로그램은 재혼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분야이지만 연구대상자 섭외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인지[17], 재혼가족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제 수행 및 평가에 관해서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 중 J.Y.Kim(2007)은 재혼가족기능향상을 위한 교육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하여 재혼가족의 적응력 증진과 재혼가족의 정체성확립, 역할정립, 의사소통능력 증진과 효과적인 계부모 역할을 통해 재혼가족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재혼가정 대상의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통해 재혼실태와 교육내용 요구도를 파악하여 세 영역(재혼가족 부부 역동/ 재혼가족 의사소통향상/ 재혼가족부모역할훈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16]. 즉, 재혼가족이 갖는 욕구와 문제(재혼가족 역동의 이해와 대처/가족 간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자존감증진/재혼가족 양육기능의 지지, 강화)를 중심으로 세 개의 프로그램(재혼가족 부부 역동 프로그램/ 재혼가족 기능향상 위한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재혼가족 기능향상위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K.S.Yoo et al.(1998)의 “또 하나의 우리, 재혼가족”은 우리나라 최초로 재혼대상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써 의의가 있으며, 양적인 설문지와 질적인 재혼자 인터뷰를 통해 사전에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6]. 이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을 형성할 계획을 가진 예비부부들이 재혼가족생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며,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가족생활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상

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위한 준비를 돕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 단계별 하위목표(1단계; 재혼가족의 특징에 대하여 이해하며 재혼생활에 대한 자신의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2단계; 자신 또는 상대방의 전혼생활에서의 상실감을 상호 이해하고 수용하며, 재혼생활로 인해 겪게 될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3단계; 재혼생활의 핵심이 되는 부부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부로서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한다/ 4단계; 재혼가족 내에서의 계부모-계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부모 역할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예비부부간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5단계; 재혼가족에서 친부모 역할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혼후 부모역할과 자녀출산 문제에 대하여 예비부부들이 기본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도록 한다/ 6단계; 재혼생활에서 친족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원만한 친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7단계; 성공적인 재혼가족생활에 대하여 이해하며,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가족전통을 수립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를 중심으로 7회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H.S.Chung et al(2000)의 ‘준비된 재혼, 또 다른 행복’은 재혼할 개인이나 예비부부가 재혼가족생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며,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가족생활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위한 준비를 돕는데 목적을 두었다 [14].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계획하였으며, 자신의 과거생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상실감을 극복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재혼생활에서의 주요한 문제들(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사전점검하는 기회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재혼에 따른 생활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전·후에 자존감척도, 재혼준비도 척도,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지를 통해 효과를 측정하였다는 점과 실제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제작한 영상 자료인 비디오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재혼가족 생활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들이 의의가 있다.

E.J.Park(2004)은 문제지향적 시각이 아닌 규범·적응적 시각에서 재혼가족을 바라보고 재혼예정자와 초기재혼자가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재혼생활을 준비하거나 적응적이고 기능적으로 행복한 재혼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재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목

적을 위하여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한 요구도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재혼 교육프로그램 구성하였다[9].

S.H.Cho(1999)는 재혼을 준비하는 편부모가족들이 재혼가족 생활을 바르게 이해하며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논의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13]. 첫째, 부자가족, 모자가족이 겪고 있는 사회 적응상의 문제를 상호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편부모가족의 재혼 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재혼 후 생활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재혼에 따른 생활변화에 대처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표 중심으로 12주 내용을 구성하였고, 주제별 강의와 사례발표, 집단상담(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을 소개하고 전 배우자와의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고 현재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재혼 준비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E.M.Hyun(2002)의 재혼가족교육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을 이루고자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재혼가족의 현실과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와 올바른 상호작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높여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준비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15]. 이는 FIRO모형을 기초로 재혼가족이 당면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상호작용 우선순위를 인식하도록 포용영역에 교육내용의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19].

Y.J.Kim(2011)은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을 제시한 연구를 하였다[1]. 첫째, 재혼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인 전망, 영성을 중심으로 한 ‘신념체계의 변화’ 요소, 둘째, 융통성 강화, 연결성 향상, 사회적 자원 동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유형’ 요소, 셋째, 개방적인 의사소통, 협력적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소통’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실천모형을 도식화하였다. 재혼가족이 잠재력을 회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레질리언스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이 함께 상호작용할 때 그 시너지 효과를 가지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재혼가족 대상 프로그램 중 H.S.Chung et al(2000)과 E.J.Park(2004)의 모형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모형을 실제 대상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적용이 없었다[9,14]. E.J.Park(2004)의 프로그램 경우 9명의 재혼예정자와 초기재혼자를 대상으로 재혼준비교육을 실시한 결과 양적평가에서 재혼예정자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효율성, 자녀양육 및 교육태도에서 교육효과가 나타났으며, 초기재혼자는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중요성 인식과 자녀양육 및 교육태도에서 교육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질적평가에서 재혼예정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혼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교육 이후 재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로 재혼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혼이 가족의 재구성을 통하여 손상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새롭게 도모할 수 있다는 재혼의 긍정적 측면도 강화되었고, 재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명한 배우자 선택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친자녀와 상대방의 이전 자녀 또는 재혼 자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명확한 합의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교육효과가 나타났다. 초기재혼자의 질적평가에서는 건강한 재혼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므로 배우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도 하고, 자녀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었고, 사회적인 편견개선 등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느끼며 정기적인 모임이나 활동, 교육,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4. 결론

재혼가족의 증가와 혼인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양상의 변화는 재혼가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재혼가족은 원가족 경험뿐만 아니라 전혼(前婚)에서의 가족관계와 가족구조로 인해 초혼가족에 비해 여러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들 재혼가족의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접근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재혼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동향을 점검해보고 향후 재혼가족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국회전자도서관, RISS, KISS 등 학술논문 관련 검색엔진에서 ‘재혼가족/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총 9편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재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재혼가족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혼준비교육이나 재혼가족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비정기적으로 재혼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수행하고도 있지만 지속적인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재

혼가족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 재혼가족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돕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과 실제 실시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재혼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혼교육에 있어서도 재혼의 유형이 어떠한지에 대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 재혼생활의 질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관계이므로, 재혼교육에 있어서도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계부모계자녀관계가 좋을수록 재혼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루며, 재혼가족 체계내의 경계도 명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재혼교육에 있어서도 계부모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넷째, 재혼 후 자녀출산의 유무보다 친밀한 부부관계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14].

또한 재혼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혼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때 필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 문제지향적, 결손 비교적 관점을 지양해야 한다. 재혼가족의 구조적 특성이 핵가족과 비교되어 문제시되어서는 안된다. 재혼가족은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의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재혼가족의 기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재혼가족의 적응요인을 제시해야 한다. 만족한 재혼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재혼생활의 적응에 성공한 사례들을 근거로 재혼생활의 적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계부모-계자녀의 역할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의 권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융통성있는 역할정립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재혼가족의 가족발달주기의 불일치를 고려해야 한다. 재혼가족은 동시에 한 가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가 만나는 것이므로 가족발달불일치에서 오는 문제들을 파악해야 한다. 여섯째, 의사소통유형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져야 한다. 갈등의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재혼부부에게 있어 재혼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다루어야 한다. 서로의 기대와 환상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다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다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한다[7]. 여덟째,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자조모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지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재혼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면에서 다음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H.S.Chung et al(2000)의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자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재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바뀔에 따라 앞으로의 재혼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재혼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과 더불어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심리적 지지 상담 프로그램도 가미되어야 한다.

둘째, E.J.Park(2004)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자들이 재혼 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특히 자신의 친자녀와 상대방의 이전 자녀 또는 재혼 자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명확한 합의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전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재혼 전 준비도를 일반적으로 체크해볼 수 있는 척도지가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문제에 관한 합의나 결정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가족회의 방법과 의사소통을 연습해보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성공적인 재혼생활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계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부모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자녀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15]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갖기 쉬운 부모재혼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분노, 슬픔, 배신감, 무력감, 실망, 갈등)를 건설적으로 다루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18].

넷째, 재혼가족기능에서 친인척 관계가 어렵다는 실태 조사[16]가 있듯이 재혼가족은 몇 겹의 친척관계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더욱 복잡하고 힘든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행사나 가족의례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중에 합의하고 연습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재혼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을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과 학위논문에 국한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을 배제시켰다는 점 등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 프로그램을 총정리해놓은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성공적인 재혼가족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구성과 적절한 교육방법을 제시한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실천모형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데에 본 연구가 방향을 제시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1] Y.J.Kim, A practice model for strengthening resilience among remarried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3), 144-161, 2012

[2] H.K.Chang, G.Y.Min, A Study on adjustment status and support methods of remarriage famil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1

[3] H.S.Kim, C.K.Ha, Stepparenting role experiences of stepfamily with adolescent children at home, Family & Culture, 23(1), 137-168, 2011

[4] J.A.Song, Y.J.Jeon, D.S.Kim, Family Life Education Theory, Kyomunsa, 2001

[5] Y.J.Yang, Remarried happy?, Damit, 2012

[6] G.S.Yoo, C.H.Lim, C.A.Jun, H.J.Cheon, Another WE Remarriage Family: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remarriage families and model development of remarriage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Korean Family Counseling Education Institute 5th anniversary conference, 1998

[7] E.Visher, J.Visher, Dynamics of successful step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4(1), 1990, DOI: http://dx.doi.org/10.1300/J087v14n01_02

[8] S.G.Kim, Basic research for remarriage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2004

[9] E.J.Park, The development of remarriage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2004

[10] M.Coleman, L.Ganong, Remarriage and stepfamily research in the 1980's; Increased interest in an old family for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25-940, 1990, DOI: <http://dx.doi.org/10.2307/353311>

[11] P. Papernow, The Stepfamily Cycle: An Experiential Model of Stepfamily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33(3), 355-363, 1984, DOI: <http://dx.doi.org/10.2307/584706>

[12] H.L.An, M.G.Hong, Divorce Family and Remarriage Family, Hongikjae, 2006

[13] S.H.Cho, Program development for remarriage advocacy for single parent. A Study of Social Welfare, 9, 81-96, 1999

[14] H.S.Chung, G.S.Yoo, C.H. Lim, C.A.Jun, H.J.Cheon,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remarriage families and quality of remarriage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4), 1-19, 2000

[15] E.M.Hyun, Development of a remarriage preparation program mod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3), 153-172, 2001

[16] J.Y.Kim, A Study on educational support program development for enhancement remarried family's fun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sinhak

University, 2007

- [17] S.J.Lee, Analyses of domestic research trend on remarriage: published between 1996 and 2007,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4), 173-195, 2009
- [18] C.H.Lim, The perception of stepfamily adolescents about their stepfamily relationship and the need for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5(5), 743-760, 2006
- [19] W.Doherty, N.Colangelo, The family FIRO model : A modest proposal for organizing family treat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1), 19-29, 1984.
- DOI: <http://dx.doi.org/10.1111/j.1752-0606.1984.tb00562.x>

노 명 숙(Myung-Sook Rho)

[정회원]



- 199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사)
- 1999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석사)
- 2009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족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조교수

<관심분야>

부모교육, 가족상담